

與,호남 첫 예산정책협의회…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 강조

광주시청서 예산정책협의회…“지역발전 뒷받침” 권성동 “복합쇼핑몰 약속 이행…문화·예술 지원” 의료인프라개선 예타 추진키로…새만금 최우선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두 자릿수 득표율에 안주하지 않고 호남 지역 약속을 실천하고 지역 발전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복합쇼핑몰 건설과 인공지능(AI)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구축을 속도감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개발과 공공의대 설립, 전남에서는 우주항공산업과 교통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호남권을 시작으로 향후 2주간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 시절 두 번이나 광주에서 근무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인연을 맺었다”고 강조하며 호남권에서의 첫 협의회 개최 의미를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광주는 민주화를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인공지능(AI)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복합쇼핑몰 유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예술·관광사업 지원도 적극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을 다각화해 전북을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새만금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길 것”이라며 “김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농생명 산업 발전과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남은 대한민국 자랑인 나로호 우주센터가 있다. 이런 전남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삶이 개선되도록 고속철도·고속도로·항만 첨단화 등 각종 SOC 사업을 지속해서 확충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산업,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화 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역



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앞으로 호남에 대해 진심을 보여드리고 대한민국 재도약과 국민통합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서 호남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비타당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18 재단이 요청한 민주화운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스탠드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형 의료기반 시설 기반을 확충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호남 지역 현안을 잘 청취해 민생 속업 사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에서는 권 직무대행, 성 의장, 김성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시·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자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이 투자하고 행정이 신속하게 인허가하는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을 만들고 싶다”며 “복합쇼핑몰을 트램 등 교통망으로 연결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의 관점에서 디지털 기반의 통합유통센터 구축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윤 대통령은 광주가 100년을 이룰 명실상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AI 산업이 2단계로 진입하고 1단계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망이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은 진영의 이념을 넘어서 여야 구분 없이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협치를 시작했다”며 “전북은 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개정 등에 대해 여야가 논의가 중단됐다. 국가 예산 확보도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에 윤 대통령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해 매번 말씀하셨다”며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서 필요하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호기자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재선·광주 서구갑)의 최고위원 출마로 공석이 된 광주시당 위원장직을 윤영덕(광주 동남을) 의원이 대행하게 됐다.

‘양향자 지역구’ 위원장 직대엔 정문성씨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광주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윤 의원을 임명했다.

또 경기 수원시 무, 경기 안성, 전북 전주와 함께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된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는 정문성 전 광주 서구를 지역위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정 대행은 8월28일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 아래서 서구를 지역위원장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지역위원장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서구에는 보좌관의 성추문 사건에 책임을 지고 양향자 의원이 탈당한 뒤 ‘경제통인’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이날

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등 4명이 응모해 컷오프와 경선을 앞두고 있다.

후보자 면접은 물론 선출 방식마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특정 인사 낙하산설’과 ‘양자 대결’, ‘3인 경선’ 등 설(說)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송갑석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구에는 안성, 전주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한데 따른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특정인에 대한 유불리가 있을지는 모를 일”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최이슬기자

이재명 ‘박지현 기회 줬음 싶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의원은 18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후보 등록 강행 움직임과 관련, “개인적으로는 박 전 위원장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 노천

극장 창고에서 열린 연세대 청소노동자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도 “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과 질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켜야 하는 당 지도부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출마 자격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호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좌절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 당 지도부에게 맡겨놓고 기다려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